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7期(2026.09.11) WWW.MINGHUI.ORG

한글판 1071호 minghui.or.kr



▲ 8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스웨덴 파룬궁수련자들은 스톡홀름 도심 국회의사당 옆 화폐 광장과 노벨 박물관 앞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진상 현수막, 패널, 연공 음악은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요내용

- 【수련】 법회 교류 원고를 정리하며 얻은 수확과 깨달음
- 【수련】 나의 답안지
- 【수련】 수련 기점을 바로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 【수련】 ‘오디세이’에 대한 고찰

〈목 차〉

■ 해외종합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바른 길을 걷다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9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6
---------------------------------	----

■ 수련교류

법회 교류 원고를 정리하며 얻은 수확과 깨달음	20
나의 답안지	23
수련 기점을 바로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29
대법의 제도 덕분에 악연이 선해(善解)되다	41
‘오디세이’에 대한 고찰	48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침내 찾는다	52
AI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60
현대 관념에 대한 약간의 인식	62
‘쓰레기통’을 ‘보물단지’로 바꾸다	67
남편의 모습이 나를 착실히 수련하게 하다	69

■ 시사평론

티베트 국경 산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74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바른 길을 걷다

[명혜지창]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중시되는 현대 농업 환경에서 한쪽 팔이 없는 농부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요? 대만의 소규모 농부 린즈룽(Lin Zhilong)에게 그 해답은 초심을 잃지 않고 양심에 따른 길을 걷는 데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주변의 비판,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도 린즈룽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 사용을 거부하고, 대신 노동 집약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뜻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고집은 그가 파룬따파(Falun Dafa) 수련을 시작한 후 얻은 삶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계 사고를 겪은 후

린즈룽은 다섯 살 때 기계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또한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는데, 밤잠을 설치게 하는 통증을 치료하려는 어머니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져 있던 어머니는 그에게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고 미술 수업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자주 받았던 그에게 미술과 문학은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처럼 저도 인생이란 그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 후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린즈룽은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를 찾아온 한 학우가 그에게 《전법륜(Zhuan Falun)》이라는 책을 건네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은 세상과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린즈룽은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격을 고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타인을 더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면 개인적인 이익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眞)·선(善)·인(忍)’은 점차 그가 사람을 대하고 삶의 난관에 맞서는 데 있어 지침이 되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을 무렵, 수년간 그를 괴롭히던 관절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농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

린즈룽이 30대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친구에게 속아 수백만 대만 달러의 사기를 당했고, 이로 인해 가족의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빚은 그에게 마치 삶이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는 ‘대법(Dafa)’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인생의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운명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그는 빚을 갚아나가는 고된 세월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자 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2010년 무렵, 대만에서 연이어 식품 안전 스캔들이 터졌고 설상가상으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즈룽은 건강에 미치는 먹거리의 영향에 대해 깊

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7세의 나이에 그는 타이베이에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하기: 마음을 담아 농사짓는 법을 배우다

하지만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한쪽 팔만 쓸 수 있는 그가 들판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린즈룽은 농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역의 베테랑 농부인 우칭중(Wu Qingzhong)을 찾아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한 린즈룽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수십kg에 달하는 장비를 짊어지고 녹초가 될 때까지 일했으며, 심지어 한쪽 팔로 무거운 쌀 포대를 짊어지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오직 땀방울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우칭중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도 않았고, 농사에 마음을 다하지도 않았어.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걸세!”

이 말은 린즈룽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무작정 자신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된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고, 시간을 내어 지역의 기후와 토양, 작물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마침내 란양 평원(Lanyang Plain)에 농지를 임대하여 자신만의 소규모 농업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순수하고 건강한 농작물 재배

린즈룽은 논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손을 진흙 속으로 댄어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그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방법인 ‘수작업 제초’를 택했습니다.

“제초제를 썼다면 몇백 달러면 해결될 일이었겠지만, 손으로 직접 잡초를 뽑는 데 드는 인건비는 거의 2천 달러에 달합니다.” 린즈룽이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곧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시작한 이후, 린즈룽은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무엇보다 양심이 뒹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먹기 꺼려지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거리는 인간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곡물과 농산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 일을 선택한 이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그는 정부나 보건 당국의 불시 점검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긴장되기도 했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혹시라도 의

구심을 갖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직접 확인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번은 보관 부주의로 곡물가루가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항의를 받은 린즈룽은 변명하는 대신 즉시 사과하고 전액 환불과 함께 대체 상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객들은 저를 믿고 물건을 구매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질책과 제안은 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일깨워주며, 제 성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매일 평온한 순간을 찾아서

건강한 몸 덕분에 린즈룽은 밭일을 할 수 있지만, 농사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수확을 앞둔 시점에 태풍이 들이닥쳐 과일과 채소 대부분이 망가지고 그동안의 투자 비용을 모두 날려버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린은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가끔은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자연재해를 겪으며 얻고 잃는 것에 대한 그의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어떤 기술을 익혔다고 해서 오만해져서는 안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하고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농사는 육체적으로 고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도움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일이며, 소규모 농산물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 또한 상당합니다. 수확량이 부족하거나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때면 불안감과 피로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매일의 연공과 가부좌는 내면의 평온 되찾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차분히 연공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불안이나 좌절의 원인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선과 냉소에 맞서며, 앞을 향해 집중하다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린즈룽은 회의적인 시선이나 냉소적인 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고, 심지어 신체적 장애를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소문이나 의심, 심지어 공식적인 항의에 직면했을 때 화가 나기도 했고 사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농부일 뿐만 아니라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따르는 수련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린즈룽은 말합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으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시련이나 회의적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나는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발밑에 놓인 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농사와 수련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요행이나 지름길을 좇지 않고 당면한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지요. 수련자이자 농부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그는 열린 마음과 떳떳한 양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9월 6일, 캐나다 오타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오타와 대학교에서 열렸다.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수련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체득을 공유했다. 어떤 수련자는 다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의 교란에 맞서 선원(神韻) 공연을 추진하고 사회에 진상을 알려온 경험을 돌아보았다. 또한 진상 항목, 가정, 일상생활에서 겪은 갈등과 시련을 이야기한 수련자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생생한 경험 속에서 안으로 찾고 집착을 제거하며, 어려움 속에서 정념(正念)을 확고히 해 자신의 수련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다. 90세가 넘는 화가 캐시는 ‘늡음’이 쇠퇴가 아니라 마음을 닦고 배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임을 체득했다. 그녀와 남편은 여전히 수련을 견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피로, 집착,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해 그녀는 끊임없이 안으로 찾았다. 그녀는 매주 중국대사관에 가서 평화롭게 박해에 항의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으며, 절묘한 인연을 이용해 예술계와 사회에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면서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를 깊이 느끼고 있다.

8월 22일,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열렸다. 9명의 수련자가 각자의 수련 경험을 공유했는데, 그중에는 법을 얻은 지 1년 남짓 된 신수련자도 있었고 수련한 지 30년 된 오래된 수련자도 있었다. 그들은 병업,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과 생활 속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장기간 꾸준히 법공부하고 연공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난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했다. 다룽(大龍)은 자신이 식당에서 일했던 3년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주 비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비록 참아

넘겼더라도 한동안 지나면 다시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이런 갈등 속에서 과거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부 집착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에게 쟁투심, 원망심, 억울한 마음, 질투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질투심은 처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비판받을 때 그는 승복하지 못하고 ‘내가 일을 이리저리 잘 했는데도 욕을 먹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깨달았다. ‘이게 질투심이 아닌가!’ 그는 집착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체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직 스스로 수련하고 깨닫는 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29일 오후, 미국 중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시카고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평화 집회를 열고 27년간 이어져 온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패널이 유독 눈에 띄었다. 행인들은 수시로 발걸음을 멈췄고, 어떤 이는 패널을 읽거나 수련자와 대화를 나눴으며, 어떤 이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안 뒤 서명으로 지지를 표했다. 인디애나주에서 온 베네수엘라 출신의 안드레이나 에르난데스는 “공산주의는 너무 끔찍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 시위 활동은 매우 훌륭하며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로리 윌리엄스는 중국영사관 근처에 산다. 상원의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즉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합니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집회에서 발언했다. 현장에서는 파룬궁 박해 반대 27주년을 맞아 여러 정계 인사가 보내온 지지 서한도 낭독됐는데, 여기에는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잭 버그먼, 위스콘신주 연방 하원의원 톰 티파니, 일리노이주 주 하원의원 다이앤 블레어-셜록, 미주리주 연방 하원의원 이매뉴얼 클리버 2세, 샘 그레이브스, 제이슨 스미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중공의 초국가적 박해를 규탄했다.

8월 29일, 미국 델라웨어주 주도 도버시(Dover)의 역사적인 도심 녹지(The Green)에서 제4회 ‘도버와 함께 춤을 라틴 문화 축제(the Baila Con Dover Latin Festival)’가 열렸다. 많은 관광객, 커뮤니티 리더, 정계 인사들이 파룬궁 부스를 찾아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장기적출 진상을 알아보고, 미국 상원 S. 4009호 법안인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 소아 중환자실 마취의사이자 델라웨어주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카츠 의원은 의학적 관점에서 장기적출 문제를 이야기했다. 카츠는 “저는 평생과 전체 경력을 의학에 바쳐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라며 “처음 장기적출에 관한 이 일을 들었을 때, 저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장기를 주문하는 것이며, 중공 정부는 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카츠는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며 “우리 국가, 즉 미합중국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8월 22일,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이 스페인 제3의 도시 발렌시아에서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반대하는 행사를 열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시민과 관광객은 진상을 안 후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에 잇달아 동참하며,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야만적인 만행을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 장소는 발렌시아의 가장 주요한 기차역인 발렌시아 북역 맞은편에 위치했으며 발렌시아 투우장과 인접해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현지 시민들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패널 앞에 발걸음을 멈췄고, 그들은 중공의 잔혹한 박해 범죄에 경악했다. 일부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패널 내용을 촬영했고, 어떤 이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챙겼으며, 어떤 이는 박해 반대를 지지하며 서명했다. 또 어떤 이는 현장에서 공법을 배운 후 마음이 즐겁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브래디와 소피아는 젊은 연인으로, 그들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장기적출 진상을 알게 된 후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브래디는 분노하며 말했다. “이것은 완전한 악(惡)이자 잔혹함입니다. 타인에게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진상에 더 무게를 실어 전 세계가 사실을 철저히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며, 유럽연합과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심층 조사를 벌여 이 만행을 금지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8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스웨덴 파룬궁수련자들은 스톡홀름 도심 국회의사당 옆 화폐 광장과 노벨 박물관 앞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현지에 거주하는 중년 부부가 화폐 광장

행사장을 지나다가 곧장 서명 테이블로 다가와 펜을 들고 서명했다. 수련자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고 있는지 묻자, 두 사람은 패널 앞에 서 있는 10대 소녀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우리는 (파룬궁 진상을) 모두 알았습니다.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오늘은 일부러 서명하러 온 겁니다”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그들의 딸이었다. 지난주 그녀는 이곳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아본 후, 집에 돌아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수련자가 작은 연꽃 한 송이를 꺼내 그녀에게 주려했다.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 지난번에 이미 작은 연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그저 엄마 아빠와 함께 와서 서명하고 여러분을 지지하러 온 거예요!”라고 말했다.

8월 30일, 우크라이나 로브노에서 ‘로브노 도시의 날’ 행사가 열렸다. 약 10명의 파룬따파 수련자가 중앙공원에 와서 공법 동작을 시연하고, 시민들에게 파룬궁과 중공의 박해 진상을 알렸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4개 도시인 르비우, 네테신, 루츠크, 키이우에서 온 수련자들도 특별히 이곳으로 와서 현지 수련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키이우 수련자 타티아나(Tatyana)는 말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 마지막 몇 년 동안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이 됐는데, 이 공법이 다양한 처지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차별해지고 균형을 찾으며 해답을 찾도록 어떻게 진정으로 돕는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8월 1일부터 9일까지 독일 메세데-에버스베르크(Meschede-Eversberg)시에서 명혜 여름캠프가 열렸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벨기에, 호주, 대만 등 13개국에서 온 1세부터 60대까지에 이르는, 어린이와 교사 및 학부모 등 130여 명이 참가했다. 매일 행사는 단체로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하고 파룬따파 5장 공법을 연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또한 자발적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 연공, 무용, 음악, 전통문화 행사 속에서 9일을 보냈다. 루마니아에서 온 16세 소녀 클라라(Clara)는 약 130년 역사를 지닌 전통 의상 한 벌을 가져왔다. 이 옷은 전통 직물로 만들어 수작업으로 꿰맨 것으로,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다.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랄바그 꽃 박람회가 인도 벵갈루루 랄바그 식물원에서 열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수련자들은 초청을 받아 꽃 박람회에 참가했고, 방문객들에게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 공법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공법 교습을 진행했다. 떠들썩한 꽃 박람회장 속에서 부드러운 연공 음악과 상서로운 공법 시연은 평온하면서도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다. 어떤 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법 시연을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자료를 건네받아 꼼꼼히 읽어보았으며, 어떤 이는 현장에서 수련자를 따라 연공 동작을 배우기도 했다. 델리 공립학교에서 온 세 명의 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파룬따파에 대해 들었다. 세 사람은 중국에서 왔고 ‘진선인’을 원칙으로 하는 이 수련 공법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돌아가면 관련 자료를 계속 읽어보고, 현지 연공장으로 가서 공법을 더 알아보고 배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교사는 또한 향후 기회가 되면 학교의 더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8월 18일, 제6회 인도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벵갈루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6명의 수련자가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리에

따라 인생의 기복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제고해, 마침내 비바람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한 수련 과정을 교류했다. 벵갈루루에서 온 시라다는 파룬따파를 9년째 수련하고 있다며, 과거 건강과 피트니스에 집착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교류했다. “수련하기 전, 저는 피트니스 애호가로서 꾸준히 요가를 하고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탈모, 지방종, 심한 생리통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해 신체 건강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 건강 조사 보고서(The China Study)’를 읽고 난 뒤, 2018년에 파룬따파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저는 파룬따파가 제가 원래 이해하던 방식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 체중이 다소 늘기도 했지만, 저는 파룬따파의 진정한 가치가 외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품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석한 수련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서로 협력해 마침내 이번 성회를 성사시킨 과정을 돌아봤다. 아울러 앞으로 바른 믿음을 더욱 더하고, 파룬따파 수련 속에서 끊임없이 용맹정진하기를 바랐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시성 안강시 파룬궁수련자 차오핑(曹萍)은 2026년 4월경 산시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74세다. 그녀가 생전 외부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돌연 “너무 잔인해”라고 엉겁결에 내뱉었고,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감시하던 감옥경찰이 강제로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렸기 때문이다. 영결식 전 친척과 친구들은 그녀의 다리에 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산시성 여자감옥은 친척과 친구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어조로 가족이 시신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운구하는 것을 저지했으며 강제로 화장했다. 차오핑은 ‘진선인’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박해를 겪었다. 2022년 9월 24일 9시경, 차오핑, 두펑잉(杜鳳英), 천전(陳軍) 등 3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뒤쫓아 온 란가오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3년 10월 25일, 쉐양시 법원은 차오핑에게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 위안을 갈취했으며 가택수색으로 얻은 모든 개인 재산(그중 4만 위안의 노후 비상금 포함)을 불법적으로 몰수했다.

신장 우루무치시 파룬궁수련자 판슈화(潘秀花·72)는 2025년 2월 말 뤼촨메이(羅傳梅)와 함께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2025년 3월 초, 그녀들은 쭈이모거우구와 신시구 공안에게 ‘심문’을 명목으로 속아서 납치돼 제4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뤼촨메이는 고문으로 인해 걸을 수 없게 됐고 신체

가 극도로 허약해졌다. 판슈화 역시 병세가 심각해 걸을 수 없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해야 했다. 결국 판슈화는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신장 제2감옥(여자감옥)에 감금돼 있다. 뤼촨메이는 3년 8개월형을 비밀리에 선고받고, 2025년 10월 3일 신장 제2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69세였다.

랴오닝성 번시시의 67세 파룬궁수련자 판웨이(范偉)는 2025년 8월에 납치돼 번시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그는 밍산구 검찰원에 기소돼 2026년 5월 29일 밍산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7월 하순에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웨이는 이미 항소했다. 판웨이는 2018년 12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후 수년간 앓아온 뇌졸중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건강을 회복했으며, 뇌졸중으로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내까지 돌볼 수 있게 됐다. 2021년 7월, 번시시 시후구 차이베이 파출소에 감금돼 모함당했다. 11월 29일, 판웨이는 번시시 난편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러나 출소 1년 후, 다시 납치돼 억울한 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8월 27일, 장쑤성 난통시 통저우구의 70대 노인 옌링(嚴玲)은 난통시 공안국 통저우 분국 국보 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난통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1년 넘게 감금돼 있던 옌링은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난징 여자감옥에 수감됐다. 옌링이 현지 공안, 검찰,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선고받은 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옌링(여, 1947년 10월 23일 생)은 올해 79세로 1998년 2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후, 예전에 앓고 있던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병, 위장염, 간염 등 질병이 약을 먹지 않고도 낫게되었다. 중공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옌링은 여러 차례 납

치 및 불법 감금을 당했다. 강제노동 1회(2004년), 징역형 2회(2015년, 2020년)를 당하며 세뇌반,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고 마침내 80세를 앞둔 나이에 세 번째로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았다.

충칭시 창서우구 평청가도의 75세 파룬궁수련자 쩌우화란(鄒華蘭)은 2026년 3월 6일, 거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날조된 허위 자료로 모함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량장신구 법원은 8월 18일 그녀에게 2년 3개월형의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현재 그녀는 항소 중이다. 쩌우화란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세 차례 부당한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구류되고 세뇌반에 감금되는 등 누적 약 14년간 부당하게 감금됐다.

산둥성 지난시의 84세 파룬궁수련자 텐수린(田樹林·남)은 불법적으로 1년간 감금된 후 장추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7월 22일 그는 산둥성 감옥에 감금됐고, 가족은 2개월이 지나서야 면회가 허락됐다. 텐수린은 산둥성 지난시 스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2025년 9월 29일 텐수린 노인은 지난 공안, 창칭구 공안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및 관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6년 5월 20일과 6월 22일 텐수린은 지난시 장추구 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텐수린은 불법적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위안을 갈취당했다.

선양시의 63세 파룬궁수련자 왕위제(王毓杰)는 2026년 8월 4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8월 18일 훈난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왕위제는 이미 항소했

다. 2026년 1월 6일, 선양시 공안국 허핑 분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훈허완 파출소 경찰은 왕위제를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납치했으며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왕위제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진상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른바 ‘증거’로 삼아 그를 훈난구 검찰원에 모함했다.

법회 교류 원고를 정리하며 얻은 수확과 깨달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지난해 중국 대법제자 법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교류 원고 정리에 참여하며, 원고를 정리하는 것도 저 자신의 수련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래에 개인적인 수확과 깨달음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원고를 정리하며 얻은 수확

수련생을 도와 원고를 정리하고 문장을 수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편집 작업입니다. 편집은 단순히 글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선별, 확인, 통합, 최적화해 글의 표현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며, 서술을 깔끔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공유하고자 하는 수련 과정과 수련의 수확을 수련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집자는 글쓴이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편집자는 문장을 다듬고 서술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글의 가독성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다

한 노년 수련생이 처음으로 중국 법회에 참가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수련생의 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이해에 따라 문장과 단락 구조 등을 조정했습니다. 수정을 마친 후 저는 글쓴이와 시간을 정해 만나서 교류 원고의 수정 내용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뜻밖에도 수련생은 제 수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서 고쳤고 꽤 잘 고친 것 같은데, 왜 수련생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한 것 같지?’ 나중에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서둘러 저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수련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연세가 많은 분이 열 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정성껏 써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답안지를 제출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원하는 역할이니,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수련생과 교류 원고를 한 단락씩 소통한 후에야 확실히 수정한 내용 중 일부가 글쓴이의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의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을 수정할 때는 먼저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해야 하며, 글쓴이와 함께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고칠까 봐 두려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두려운 마음을 형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 역시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수련생은 시간이 부족해 원고 수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수정 권한을 전적으로 제게 맡겼습니다. 이때 저는 부담감이 좀 컸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수련생의 실제 상황을 생각하며 그를 배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저의 이 두려운 마음도 닦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당당하게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2) 비학비수(比學比修)

결에 있는 수련생들의 교류 원고를 정리하면서, 평범해 보이는 대법제자들이 뼈에 사무치는 심성 고비를 넘기고 진상을 알리는 과

정에서 겪은 아슬아슬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경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의 위대함과 대법이 만들어 낸 수련자의 위대함을 진실로 느꼈습니다. 수련생들의 법회 교류 원고 정리에 참여해 그들과 함께 수십 년간의 수련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영광이며, 제가 비학비수해 앞으로의 수련 길을 잘 걸어가도록 격려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 약간의 요약

이번 원고 정리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역시 ‘진(眞)’을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 후의 교류 원고는 반드시 글쓴이가 ‘진실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얻은 약간의 경험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고 수정자의 역할은 보조이며, 글쓴이가 교류 원고를 완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련 체험을 섞지 말고, 최대한 글쓴이의 글이 더 명확하고 매끄러우며 논리 정연하게 표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글쓴이가 제출하는 수련의 답안지이기 때문입니다.

2) 글쓴이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글을 수정하기 전에 가능한 한 글쓴이와 소통해 글에서 서술하는 사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감정 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피하고 문장 수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쓴이의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글을 마주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사람이 글쓴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글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읽어야만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글쓴이가 표현하고

자 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하고, 글의 표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4) 글쓴이와 확인해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글을 수정한 후 다시 글쓴이와 글 내용에 대해 교류해야 합니다.

이 글을 써서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답안지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며, 1994년 사부님께서 지난(濟南)에서 여신 제2기 전수학습반에 참가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갔지만 그때의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눈앞에 생생합니다. 이 소중한 뛰어난 여정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제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부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의 사상과 몸을 정화해주셨고 제 세계관을 바꿔주셨으며 동시에 사부님의 온화하고 친근하며 소탈하신 언행도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대법의 크나큰 은혜 속에 젖어 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학습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부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체득 소감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지와 펜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었지만 모두가 앞다투어 종지와 펜을 구해 이번 생에서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 생에 위대하신 사부님께 직접 전수받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없는 영광이며 끝까지 수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습반에 참가한 사람은 400여 명이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 사부님께서서는 여러분 모두가 쓴 체득 소감을 다 읽어봤다고 하시며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회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수련자들을 그토록 자비롭게 아껴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설법이 끝난 뒤 사부님께서서는 각지에서 온 수련자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떠오릅니다.

1. 사부님께서 저에게 ‘남김없이 버림’을 깨우쳐주시다

대략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오빠 내외와 여동생이 누가 제 집에 사느냐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고 오빠는 저에게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에 공짜로 살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겨 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나?’ 저는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오빠와 여동생 둘이 상의해서 처리해. 난 돌아갈 수도 없으니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집도 오빠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집안 어른도 아닌데 왜 나와 이런 걸로 실랑이를

별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이렇게 화를 낸 것 자체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속인 마음이었고 그것이 저를 끌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도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그때 사부님께서 저를 깨우쳐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버림[捨盡]’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명혜망의 글 ‘남김없이 버림’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옛적, 시비왕(尸毗王)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비왕은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매에게 쫓기던 비둘기가 그의 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매가 항의했습니다. “저 비둘기는 제 먹이입니다. 왕은 모든 생명을 구한다면서 왜 제 목숨은 무시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이라 여긴 시비왕은 비둘기 대신 자기 살을 베어 매에게 주기로 하고, 공평하게 비둘기와 같은 무게만큼 저울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을 베어도 저울은 계속 비둘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살을 다 베어냈는데도 부족하자, 시비왕은 자기 몸 전체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매와 비둘기는 본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시비왕의 진심을 시험하려던 제석천(인드라)이었고, 그의 흔들림 없는 자비를 확인한 뒤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깨우침을 이해했습니다. 고대의 한 왕이 비둘기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도 버릴 수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에 있어 자신을 ‘남김없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혈변 증상이 나타났는데 꽤 심각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속인들과

무엇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동시에 저를 격려해주며 “그들과 따지지 말고 그저 연공이나 하세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들이 싸우고 싶으면 싸우게 놔두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려놓았고 동시에 정념을 많이 발해 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혈변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고비가 저에게는 유난히 컸다고 느꼈지만 고비가 클수록 넘긴 뒤의 제고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고비를 넘긴 뒤 공력도 늘었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2. 손자에 대한 정이 병업 고비 불러들여, 정념을 굳건히 하니 기적이 나타나

이듬해 작은손자가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제 두 손자는 모두 제가 길렀는데 특히 작은손자를 저는 유난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너무 춥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낯선 곳이라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 챙겨줄 수 있어. 여기에도 명문 학교가 있고 형이 떠났으니 너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는 식이었습니다. 목적은 손자가 제 곁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여겨서 제 말을 들으면 틀림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심리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육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구세력에게 그 약점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한 항목에 참여하면서 매일 바빠 법공부도 적게 했고 정념을 발할 때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두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또 한번은 잔디밭을 보면서 “왜 이 길이 없어졌지? 다 잔디밭이 됐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길이 보이지 않았고 속으로 ‘이러다 도로로 뛰어들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들이 밥을 가져다줬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봐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말이 입가에 맴돌았을 때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사부님께서는 ‘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해 전 노수련생들은, 나중에 온 신수련생들을 포함하여 나는 당신들을 모두 제 위치에 밀어놓았다. 오로지 정념 정행 하기만 하면 완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작은 생각이라도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이며 사부님의 제자인데 어찌 속인에게 가서 치료하겠는가?’ 사부님께서 처음 법을 전하실 때 구세력은 사부님을 북극으로 가시게 해 제자들이 사부님을 뵙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구세력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제자들의 눈에 손을 써서 저희가 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해 제자들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려던 그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마침 그 주에 아들네 가족이 여행을 갔고 저도 거의 밖에 나가지 않은 채 대충 뭔가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책을 볼 수 없어서 저는 연공을 하고 정념을 받으며 강력한 정념으로 그것을 없앴습니다.

아들이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저도 좋아져 있었으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시력이 회복됐고 저는 아예 돋보기안경도 함께 벗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300도짜리 돋보기안경도 이제는 벗을 수 있게 됐고 안경을 어디에 던져버렸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으며 저는 체득했습니다. 일사일념을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하며 많은 일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권을 가지면 사부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이 정사대전(正邪大戰)을 거치며 저는 또한 자신에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많은 집착심이 있음을 봤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저희를 더 높은 층차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3. 사람의 관념을 돌파하다

최근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 목과 앞가슴에 작은 뿔루지가 뻑뻑하게 잔뜩 돌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외선 알레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자외선인가? 나는 방안에 있는데 자외선이 어떻게 여기까지 비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옷을 입고 옷깃도 여미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예전에 저는 어떤 자외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흥법하고 연공할 때 아무리 강한 햇볕이 내리쬘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소업을 시켜주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 그 작은 뿔루지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련의 길을 돌이켜보면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세심하게 저를 보호해주셨고 조금이라도 향상할 때마다 격려해주셨으며,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마다 깨우쳐주셔서 끊임없이 저희가 정법 속에서 더 높은 층차로 법에 동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바로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든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황금빛 대도(大道) 위를 걸어왔으며 그 길 위에서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加持)와 보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크나큰 은혜는 넓고도 깊어서 천마디 만 마디 말로도 대법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수련 기점을 바로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 초에 다행히 대법서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을 얻고 어떻게 수련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수련 체험을 이야기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본 집착 찾아내기

근본 집착을 분명히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점진적인 인식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제거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제 근본 집착이라고 여겼습니다. 친구가 제게 대법서적을 줬을 때가 마침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책을 본 지 불과 몇 달 만에 제 몸에는 확실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수련을 했지만, 아직도 당초 생각인지, 사람의 이 마음이 자신을 여기에 남아 있게 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제자로 여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집착심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며 법에서 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몸을 얻고 싶어서 계속 여기에 남아있는 것인가?’ 대답은 ‘법에서 병의 근원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후,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던 집착은 이미 내려놓았다’였습니다.

어느 날 명혜망에서 수련생의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처음 ‘전법륜(轉法輪)’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고 공감했던 부분에 근본 집착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이 사부님께서 선사 문명을 말씀하신 부분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 부분을 읽고 몹시 흥분했으며, 이 책이 제게 가장 완벽하고 명쾌한 해답을 줬다고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선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생명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대법(大法)이 자신의 과학 관념에 부합한다고 여기고”(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과학 관념에 동의했기에 사부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니, 과학에 대한 집착이 바로 제 근본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집착은 다년간 제 수련의 모든 방면을 관통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과학적인 설명을 떠올리고, 설사를 하면 즉시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회상했습니다. 또한 무신론적 사고로 사부님과 법을 100% 믿지 못하는 것 역시 과학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 집착을 인식한 것은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법공부와 수련 속에서 더욱 노력해 이런 관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요소와 진정한 나를 분리해 자신을 순수하게 해야만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을 더욱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수련하지 않는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큰 문제에서는 미래를 무척 낙관하고 자신감 넘쳐 하면서, 정작 새로운 환경 적응이나 언어 장벽 같은 눈앞의 어려움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이라도 만난 것처럼 굴더라. 이런 일들이 부처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남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 수련하지도 않는 남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수련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렸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왜 수련하는가? 또 왜 고생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학창 시절 겪은 여러 일로 인해 인생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고, 사람들 사이

의 명리(명예와 이익) 다툼에 몹시 싫증을 느꼈습니다. 수련 전부터 그저 조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육 경연 대회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고, 직함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수련 후에는 자신이 명리를 담담히 여긴다며 더욱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담담하게 보는 이면에는 제 근본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련을 이용해 세속의 번뇌를 피하고 제가 원하는 단순함과 자유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상은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 수련은 자신을 해탈하려는 것이었고, 제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법 안에서 ‘인생의 갈망’을 찾으려는 집착이 있었기에, 제 수련은 늘 주변 환경이 제게 부합할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련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초조해하고 의기소침해지는 식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고생스럽고 피곤한 것을 두려워했으며, 수련인이려면 마땅히 갖춰야 할 여유와 낙관적인 태도도 부족했습니다. 대법 속에서 ‘무릉도원’을 찾으려는 이 집착이야말로 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이 근본 집착을 똑똑히 보고, ‘자아’에 기반한 이 집착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일깨웠습니다. 대법제자가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은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더 잘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선(善)과 자비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2. 정법수련의 기점에 서서 아이에 대한 정을 수련해 버리다

2011년, 중공 악당 직원들의 끊임없는 교란에 직면한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와 함께 중국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들은 13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함께했습니다(남편은 중국에 남았습니다).

타국을 떠도는 느낌과 오랜 기간 서로 의지해 온 탓에 아들에 대한 제정과 의존심은 배로 커졌습니다. 아들은 성품이 온화했고 해외에서의 우리 처지도 잘 이해해 줘 사춘기 특유의 반항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무척 강해져, 수련부터 학업, 직장, 교우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더 많이 개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의 책임이라고만 여겼지, 이런 제정과 집착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타지에서 떠도는 처지라 저와 아들의 미래가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뜻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수련생이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든든한 지팡이네요”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뻐하기만 했을 뿐 그것이 수련인으로서 아이에 대한 의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일깨움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 우리 난민 정착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호주로 가고 저는 캐나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말레이시아에는 유엔에 난민을 신청한 파룬궁수련생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결국 같은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됐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데다 거리도 수만 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온갖 방법으로 저를 출국하게 한 남편을 원망했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채 그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만 자고 싶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감정 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제 수련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겉보기엔 어떤 결정이나 타이밍 때문에 일이 꼬인 것 같았지만, 수련인으로서 마음속으로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없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저는 고통 속에서 깨어난 듯 했고, 제 문제를 영화 보듯 되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삶에서 아들의 존재를 너무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제 ‘지팡이’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이 정 때문에 숯한 심성 고비를 겪었고, 사람 구하는 데 써야 할 금쪽같은 시간을 대량으로 낭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수없이 지친 끝에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더 이상 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자에게 자녀의 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가지(加持)해 주십시오.”

사부님께 간구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담담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됐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왜 뿌리 뽑기 어려웠을까요? 집착을 버리려는 출발점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번뇌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했고, 모든 것을 개인적 이익을 지키려는 각도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수련생은 교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법 수련의 기점에 서지 않고 어떤 마음을 얹어려고만 하면 무의식 중에 개인 수련에 빠지게 됩니다. 기점이 이기적이면 구세력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구실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년간 아이 문제에 있어 온통 ‘사(私)’라는 글자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내가 그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것, 내 소원을 그가 이뤄주길 바라는 것, 내가 자녀의 정을 끊어내겠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나’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제 첫 번째 신분은 대법제자입니다! 그것도 정법시기 대법제자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자녀의 정에 얽매어 법공부도 못 하고, 발정념 할 때도 마음이 뒤집히며, 진상을 알리고 싶지도 않을 때, 고심하며 널 제도하시는 사부님 심정은 어떠하시겠는가? 한때 네게 큰 기대를 걸었던 그 생명들은 어찌 되겠는가?’ 이성적으로 깨어 있을 때 수없이 자문하며 마음속으로 거듭 외쳤습니다. “너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야! 너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라고!!”

저는 사부님의 법을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각지 설법 13-2015년 뉴욕법회 설법)

점차 짙게 깔려 있던 정의 물질이 열어졌고, 아들을 떠올릴 때 느끼던 씁쓸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진정한 자아(眞我)가 정에 휩싸인 가짜 자아(假我)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배척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의 물질은 한 꺼풀씩 벗겨내지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됐고, 집착을 버리는 기점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구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3. ‘말후에 중생들이 서로 구하는 것’을 체득하다

사부님께서서는 경문 ‘험악(險惡)을 멀리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상을 알렸고 대법활동에 참여했고 대법항목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법을 위해, 사부를 위해 무얼 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

은 사부가 당신들에게 서로 구조(救助)하게 하고, 서로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구도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말후에 중생들이 서로 구하는 것이다.”

아래 몇 가지 작은 이야기를 통해 이 법에 대한 제 작은 깨달음을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이게 말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석 창문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호신부(護身符)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걸 걸어두셨네요?”라고 묻자, 기사는 호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친척이 이걸 배우거든요. 고도 근시였는데 며칠 연마하더니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이건 초과학이라 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용기 있게 말한다고 칭찬하자 그는 오히려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사실인데 말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오든 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기사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진실하게 말하는데 두려울 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진상을 알릴 때 두려워하며 별벌 떨던 단계였는데, 사부님께서 한 보통 사람의 두려움 없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심으로써 제 두려움과 관념을 없애도록 채찍질해 주신 것입니다.

제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걷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남들과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 기사의 정기(正氣)가 남편이 중공 악당에 대해 갖던 두려움

을 꺾어내린 것입니다.

사존께서는 여러 번 인연을 안배하시어 경찰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파룬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저와 남편이 함께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고무시켜 수련의 길을 더 당당히 걷도록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진상 듣기를 거부하던 그가 나중에는 아이 담임 선생님께 왜 소선대에 가입하지 않는지 설명하러 가는 길에 저와 동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반에서 첫 번째로 중공 당원이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악당에 가입했던 그가 나중에 탈당하게 된 것은 위대한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안배 아래 세상 사람들이 릴레이하듯 그에게 진상을 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저는 전화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하루는 한 남성이 전화로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은 선근(善根)이 있으셔서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주시네요”라고 하자, 그는 무척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릴 위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걸 하는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은 많은 사람을 일깨워 여러분을 따르게 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해에 감사드리자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뒤를 따라 그 발자취를 쫓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곳곳이 해나가면 그들도 깨어날 겁니다. 우리 민족에

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저는 한 평범한 중국인이 깨달은 후 보여준 대의와 이타심에 감동했습니다. 내내 그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도, 사회를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악당의 기만과 죄악을 이야기할 때조차 분노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민족과 아직 깨어나지 못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말에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가 중생에게 진상을 알린 것이 아니라, 사부님께서 중생의 입을 빌려 제게 일깨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상은 입으로 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선(純善)하고 타인을 위하는 경지로 수련해 낼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제 모습에는 종종 조급함과 불만 섞인 감정이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이런 생명을 안배하시어 제가 수련해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중생이 대법제자를 칭찬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제가 사명을 잊지 않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3) 진상을 목격한 옛 수련생

진상 알리는 장소에서 이따금 예전에 대법을 수련했던 옛 수련생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을 보면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놀라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광단 일행을 피해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여러 이유로 수련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엔 대법의 뿌리가 내려 있어 진상 게시판을 응시하며 소리 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무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 표정

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해외의 자유로운 수련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한 여성은 자신과 어머니가 1999년 이전에 대법을 배웠는데, 박해 이후로는 감히 연마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수련생을 만나본 적도 없고 파룬궁이 아예 자취를 감춘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있는 자료를 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수련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끌고 갔지만, 그녀는 몸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는 계속 우리 쪽을 향한 채 오랫동안 애똥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멀리 걸어 갔음에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이 옛 수련생들을 해외로 이끌어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알리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어쩌면 그들이 수련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대법 진상을 보며 다시 수련의 길로 돌아가길 갈망하던 그들의 눈빛 역시 제가 진상 알리는 장소를 곳곳이 지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은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게 억지로 음료수를 쥐여주던 관광버스 기사,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중국 수련생의 가족, 어머니는 저를 내쫓았지만 아들은 몰래 저를 찾아와 탈당 하던 중국인 관광객 등……. 그 생생한 표정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에 저장되고 가슴에 새겨져 수련의 길을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태해질 때, 심성 고비를 넘지 못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저는 똑똑히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사부님의 안배를 저버릴 수도 있고, 제 기억 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할 얼굴 하

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어요! 수없이 나갈까 말까 마음속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어쩌면 단 한 번뿐일 그 만남을 떠올리며 저는 억지로라도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이런 상태로 진상 알리는 곳에 가거나 심지어 가는 길에서도 특별히 인연 있는 중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법 진상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진상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그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왔어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은 마치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과 만날 인연을 놓쳤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무척이나 경이롭습니다!

저는 우연이 없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존께서 제가 사람의 마음에 얽매어 자아의 득실을 따지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생명을 안배하시어 저를 일깨우고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이 제게 책임감을 되찾아주었고, 말레이시아의 피악별 아래서 진상 알리는 곳을 8년이나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이 8년은 대법의 인도가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생명이 구원받은 기쁨을 직접 느끼지 못했다면 고생을 꽤나 두려워하는 저로서는 하루하루, 해마다 이어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존의 ‘험악(險惡)을 멀리하라’ 경문을 받들어 읽으며, 사존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서로 구한다’는 것에 대해 제 층차에서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중생에게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중생 역시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리를 성취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련 중에 얻은 것은 우리가 치른

대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제자에게 위덕을 세워주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련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대법제자와 중생은 서로 돕고 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자신이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조금의 자만심도 가질 이유가 없으며, 그 어떤 생명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제자로서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자를 위해 수련의 길을 닦아주신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길에서 대법제자를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중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舍十)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대법의 제도 덕분에 악연이 선해(善解)되다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어릴 적부터 깊이 뿌리내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계부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나이가 어려 큰 슬픔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부가 우리집에 온 뒤로 제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줄곧 계부와 전생에 악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한 사람에게서 싫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특징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한 지

붕 아래에서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야 했으니 제 마음속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에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부가 출장을 가거나 멀리 떠날 때가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응어리를 깊이 숨긴 채 최대한 정상적인 예의를 갖추어 계부를 대하려 했지만, 저와 계부는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자라서 외국으로 나온 뒤 저는 수련을 시작했고, 계부는 비자 문제로 캐나다에 오지 못해 갈등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기에 저는 머릿속에 가끔 떠오르는 계부에 대한 반감도 마음을 다해 닦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계부의 비자가 승인되어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 오면서 다시 세 식구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다시 마음속 가득한 반감과 혐오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멀리 떨어지고 싶으면서도, 괴로움을 억지로 참아내며 친아버지처럼 대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스스로 꽤 잘하고 있다고까지 여겼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최대한 존경을 표하고 응당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켰으니 스스로 괜찮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계부는 사소한 일로 갑자기 제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며 저에게서 딸로서의 친근함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불만을 듣자 그동안 오랜 세월 마음속에 숨겨왔던 제 불만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갈등은 마침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분노 속에서 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새 가정을 다시 꾸려 자신의 친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계부는 더 이상 저를 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말

도 섞지 않겠고 당장 귀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여러 해 동안 억울함을 참으며 지내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현실은 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도대체 저의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논쟁 중에 상대방이 악의를 드러내며 저를 억누르고 깎아내리며 짓누르려 한다고 느낄 때, 제 안의 쟁투심이 승복하지 않고 반박하며 상대를 이기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쟁투심은 때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어쩔 거냐’는 식이었는데, 이는 일종의 뒤틀린 쟁투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강렬한 반감과 혐오,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쟁투심과 합쳐져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만들었으며, 선한 마음은 물론 자비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계부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한다고 느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꽤 충분했고 그 정도면 이미 잘했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마음속에 혐오와 반감을 품고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이 선하지 않아 반드시 업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찌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빛 하나로도 업을 지을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왜 우리에게 집착심을 없애라 하셨을까요? 제가 현재 증차에서 이해한 바로는, 집착심이란 사람을 진선인(眞·善·忍)에서 멀어지게 하고 업을 짓게 해 한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도 일종의 정(情)입니다. 강렬한 반감은 강렬한 애착과 마찬가지로 모두 집착심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수련이 아닙니다.

며칠 뒤, 저는 계부에게 차분하고 진솔하게 사과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깨져 도저히 수습할 수 없어 보이던 부녀 관계가 순식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변했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는데, 기적 같으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계부를 마주할 때 괴로움과 반감이 올라오면 마음속으로 커다란 ‘선(善)’이라는 글자를 떠올려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 선함이 모든 좋지 않은 생각을 덮고 녹여내도록 말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계부에게 진심으로 한 차례 사과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에게는 또 다른 마음들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저와 계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에 대한 정 등도 있었습니다. 법공부를 한 뒤 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사사로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저를 화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감정들 이면의 집착심을 똑바로 보고 내려놓자, 계부는 곧바로 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과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아예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님의 안배는 이토록 세밀하고 신묘합니다. 우리를 수련 성취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집착심과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갈등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집착을 직시하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할 뿐입니다.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佛光普照, 禮義圓明).”(전법륜)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우리집의 가족관계는 풀 수 없는 짝 막힌 매듭이 됐을 것이고,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대법이 세상에 전해진 것은 가정 문제나 사회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은 근본적으로 수많은 뒤튼린 영혼을 바르게 이끌어 진정한 제도와 행복을 얻게 해줍니다. 그저 이 경험을 적어 사부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선원 공연 기간의 한 경험

저는 올해 선원 공연 기간에 직접 겪은 경험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정념을 발하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비파 선생님은 86세 고령으로 은퇴하신 비파 교수이신데, 중국에서 공연 경험이 풍부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연을 보시라고 추천할 때마다 선생님은 이미 공연을 너무 많이 봤고 신앙도 다르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올해도 처음엔 마찬가지로 거절하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저와 함께 보러 가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일찍 저는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모시러 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갑자기 갈 수 없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심한 감기에 걸려 온몸이 괴로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절묘한 것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여러

해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편찮으신 적을 본 적이 없고 선생님 본인도 늘 수십 년간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전화상으로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푹 쉬시라고 위로하며 잠시 후 문병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즈음 제가 정념을 제대로 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제도받아야 할 중생이 마지막 순간에 가로막히는 현실이야말로, 정사대전(正邪大戰)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의 교란은 보통 세상의 이치에 부합해야 하기에 때로는 사람을 깊이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노골적이고 광기 어린 교란은, 배후의 사악함이 너무나 발악하고 있으며 제가 사악을 제거하는 데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즉시 가부좌를 틀고 정념을 발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고 시간도 촉박했기에 제 주의력은 유난히 집중됐고, 이 선생님이 선원을 보지 못하게 교란하는 사악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하게 정념을 발했습니다. 정념을 발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였습니다.

잠시 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선생님 댁으로 갔는데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 댁 문 앞에 도착하니, 선생님은 이미 옷을 단정히 입고 계셨고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제 차에 타셔서 저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끊은 뒤 갑자기 괴로움이 가셔서 샤워를 했더니 외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선원을 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을 심하게 나무랐고 선생님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는데, 오히려 공연을 보러 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

시면서, 병이 어찌면 이렇게 빨리 왔다가 빨리 갔는지 이상하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가 피병을 부린 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을 보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배우들의 춤을 평가하며 저 배우는 몇 년의 공력이 담겨 있다든지, 노래는 어떻다든지 이런저런 품평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들을 뿐 별달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선생님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벅찬 감동을 드러내며, 이 무용수들은 특히나 바르고 순수하며 중국 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파룬궁이 박해받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진실하게 다가왔고,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공연 내내 조금의 원한도 보이지 않아 무척 감동받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공연을 다 본 뒤 선생님 몸에 있던 모든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심한 감기 증상도 온데간데없어졌으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딸의 태도도 누그러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생명이 제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서 사악의 가로막힘으로 제도받지 못하게 될 뻔하다가, 대법제자가 사악을 제거해 사람을 구하고 그 생명이 시련과 시험을 겪으며 일정량의 업력을 소멸한 뒤 마침내 선원을 볼 수 있게 되며, 제도받은 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생생하며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성이 부족하고 또 닫힌 상태로 수련하다 보니, 때로는 자칫하면 속인의 생각과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가 한 생명이 제도받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중대한 천기와 책임이 담겨 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오디세이’에 대한 고찰

글/ 더양(德楊, 유럽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오디세이’는 서구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 하나로, 기원전 7~8세기에 처음 문자로 기록됐다. 그 이전에는 계속 구전됐으며, 원작자는 기원전 12~13세기에 살았던 맹인 음유시인 호머로 알려져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오디세이’가 발휘한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작품은 여전히 인류의 사상과 도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 이후 ‘오디세이’는 30여 편의 영상 작품으로 각색됐으며, 최신판이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어서 호머의 원작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이 영화를 평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를 이야기하고 영화를 관람한 후 내가 법(法)에서 얻은 약간의 깨달음을 나누고자 한다.

호머의 ‘오디세이’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이타카섬의 국왕이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

고 바다를 건너 원정해 트로이성을 공격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간 지속됐고,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계략을 고안해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성안으로 잠입해 성문을 열어 주력군이 성안으로 진격하게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전반부 10년의 이야기는 ‘일리아스’에 기록돼 있고, 후반부 10년의 경험은 ‘오디세이’의 주제를 이룬다. 다시 말해, 오디세우스는 온갖 고난을 겪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타카로 개선하려 했지만, 역풍에 항로를 벗어나 미지의 해역으로 표류하며 한 번도 탐험하지 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전개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정이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응보는 모두 신에게서 오며, 인간의 행동이 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분명 제우스와 못 신들의 보호가 없었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신이 어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바로 인간의 논리와 신에 대한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온갖 시련을 겪었다. 그중 일부는 극복했지만, 일부는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식욕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녀 키르케가 일부 병사들을 돼지로 만들었다.

또 다른 예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의 귀향을 돕기 위해 광풍이 든 신기한 자루를 주었다. 하지만 호기심에 가득찬 부하들이 몰래 자루를 열어 안에 있던 바람을 풀어버렸다. 호기

심이라는 집착은 결국 함대의 침몰을 초래했고, 유일한 생존자가 된 오디세우스는 나무토막 하나에 의지해 다음 목적지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다음 시련인 칼립소의 섬을 방문하게 된다.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 곁에서 오디세우스는 또다시 안일함과 색욕이라는 새로운 집착에 빠지고 만다. 이로 인해 그는 망각, 나태, 그리고 정(情)에 빠져 오랫동안 섬에 머물렀다.

이는 동시에 그의 참음[忍]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7년 후, 그가 끝내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자 요정은 마침내 그가 이 섬을 떠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번에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모략, 혹은 힘에 의지하지 않고 운명에 순응했다. 그는 직접 뗏목을 만들어 타고 자신을 바다에 맡겼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법제자의 ‘오디세이’

대법제자 역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사부님께서는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이다”(전법륜)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과거에 다른 법문(法門)을 수련한 적이 있지만,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선 후 가장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은 바로 어떠한 표면적인 기교나 방법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의 능력과 지식은 끝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비록 그가 저승에 들어가 속죄하는 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를 도운 것은 오직 바른 믿음뿐이었다.

대법제자로서 나는 수련과 중생구도 측면에서 진정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지식이 가장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사부님의 안배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처럼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있다. 원래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바다에서 표류하며 언제든 방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구세력 역시 이 점을 이용해 끊임없이 내게 시련을 더하고 있다. 나는 줄곧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항해할 뿐 끝내 육지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사부님께서서는 “나는 순박한 사람, 착실하고 건실한 사람을 좋아한다”(각지 설법11-2010년 뉴욕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다.

한 시련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요정)의 섬을 지날 때,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은 채 세이렌의 오싹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순박하고 착실한 것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 또한 일종의 집착인 과시심과 환희심이다.

과시심은 사실 이 10년에 걸친 표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모험이 막 시작됐을 때,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찔러 멀게 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칠 때 득의양양하게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대방에게 모욕을 줬다. 하지만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 바로 이 때문에 포세이돈은 끝내 오디세우스의 함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오디세우스처럼 무의미하게 자신의 귀환 길을 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왕국을 떠난 것은 불과 20년이었지만,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 사부님께 서약을 하고 각자의 천국 세계에서 내려와 이곳에 왔다. 우리의 ‘오디세이’는 어쩌면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됐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니 이 길은 정말 그렇게 험난한 것일까? 이 마지막 윤회 속에서 우리가 집과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설마 또 실패하겠는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이정표를 남겨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침내 찾는다

글/ 튀르키예 거주 이란 수련생

[명혜망] 수년 동안 나는 진정한 길을 찾고자 계속 모색했고 어떤 원칙을 통해 삶 속에서 조화와 생명의 의미를 체득하기를 바랐다. 이런 강렬한 추구는 때때로 나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 일상생활과 책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또 때로는 영적 수련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랫동안 방황 속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진정한 스승을 찾기 위해 여러 유명한 영적 수련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런 여정 역시 해결책을 찾아주지 못했다. 광활한 신앙의 바다에서 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녔다. 비록 때때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번쩍이기도 했지만 이내

사라져 버리곤 했다.

약 2년 전 나는 친구와 함께 도보 여행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그가 지쳐서 자신의 물건 일부를 내게 주며 들어달라고 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책 두 권이 있었는데 본래 그가 여행 중에 읽으려고 했던 책들이었다.

그날 밤 쉬는 시간에 나는 그의 허락을 받고 그중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 책[‘파룬궁(法輪功)’]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내 마음속의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아주 낮익고 무척이나 친숙한 느낌이었다. 내 모든 세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수년 동안 계속 찾아 헤매던 길임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책을 다 읽었다. 문득 내가 이미 한번 다 읽고 두 번째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내가 친구에게 이 책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으며 다른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비로운 빛

내가 처음 ‘전법륜(轉法輪)’을 다 읽었을 때 아직 많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글자를 읽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 명확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처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책을 읽었다. 하지만 매번 마치 갑자기 신비로운 빛 한 줄기가 무언가를 밝혀주는 것 같았고 예전에 읽었을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문장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점차 나는 이것이 내 이해 과정의 일부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은 여러 번 읽은 후에도 처음 만나는 듯한 문장과 마주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은 뒤 다시 계속 읽어나간다. 이제 나는 서로 다른 층차의 법이 반복해서 읽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 점점 더 높은 층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 체득하게 됐다.

꿈속에서 열린 문

출발하기 며칠 전 나는 산꼭대기에 있는 어느 사원에 가는 꿈을 꿔다. 그곳에는 높은 아치형 기둥이 있었고 신단에는 옆으로 누운 불상이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습은 무척 낯설면서도 생생했다. 아치 옆에는 방석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주황색이었다. 잠에서 깬 후 나는 꿈에서 본 장소의 위치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이후 여행 도중 내가 그 책을 읽고 있던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꿔다. 나는 나 자신이 끝없이 넓은 흰 천으로 변한 것을 보았는데 사부님의 법신께서 밝은 노란색 가사를 입은 몇몇 중생을 이끌고 무척 빠른 속도로 이동하시며 이 흰 천 위에 은하계 하나를 올려놓으셨다.

‘전법륜’을 다시 읽은 후 나는 그것이 아마도 파륜(法輪)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겨울 어느 날 밤 난방도 되지 않아 몹시 추운 집 안에서 나는 갑자기 강렬한 따스함에 놀라 잠에서 깬다. 나는 뼈를 에는 그런 추위 속에 어떻게 이토록 따듯한 기운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나는 공(功)의 흐름과 수련자가 때때로 느끼게 되는 갑작스러운 열기에 대해 읽게 됐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게 됐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고 민감한 사람도 감수(感受)할 수 있는데, 잠을 잘 때나 혹은 어느 때라도 갑자기 한 줄기 뜨거운 흐름이 정수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전신을 관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펼쳐졌다. 하지만 나는 대법제자가 법을 얻은 후의 깊은 기쁨과 진정한 복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초기에 내가 막 수련을 시작했을 때 나는 몇 가지 무척 기이한 감각적 체험을 겪었다. 때로는 허공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가부좌하고 입정(入定)했을 때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내 양손 사이에서 바퀴 모양의 소용돌이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내 양손이 정말로 이 에너지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때로는 일상생활에서든 연공을 할 때든 완전히 다르고 경이로운 에너지가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는데 마치 신비로운 통로 하나가 내 몸의 어느 부위를 관통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또 어떤 때에는 한 줄기 에너지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내 전신을 스캔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연공 과정에서 몸이 마치 둘로 나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고 그와 동시에 극히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내 정수리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다.

당시의 얕은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스스로 정진하고 우수한 수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혹독한 심성 고비에 직면했다. 나는 곧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는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줄곧 숨기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에게 튀르키예에

서의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곤 했고 그는 항상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큰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가장 최근의 내 경험은 이러했다. 가부좌하고 입정한 후 나는 내 양 손등 부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내 양손은 감각적으로 이미 에너지가 가득 찬 한 덩어리의 안개로 변해 있었다. 나는 타인에게 이런 경험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이런 현상에 대해 그 어떤 집착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내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욕망은 단지 자기를 과시하려는 일종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가 이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이것이 내게 있어 무척 중요한 고비임을 알고 있었고 올바른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마치 올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것만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이 감정적 집착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거의 익사할 지경임을 느꼈다. 어느 날 심야 홀로 거리를 걸으며 내면의 감정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음을 느꼈을 때 나는 절망 속에서 사부님께 구해주시기를 호소하며 사부님께서 내가 이 시련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했다.

잠들 무렵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꿔는데 자신이 어느 산에 갇혀 있는 꿈이었다. 그 산은 바위가 험준하고 산비탈이 기이할 정도로 가팔라 심지어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는 만약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디면 심연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

고 있었다. 그 꿈속의 광경은 너무나 깊고 진실해서 마치 내 영혼이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막 계곡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귓가에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오너라!” 그 목소리는 비할 데 없이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앞쪽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나타나신 분은 바로 사부님의 법신(法身)이셨다. 그분은 손을 내저으시며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 꿈속에서 사부님의 법신은 중국 무림 종사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장엄하고도 위엄이 있으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오래도록 메아리쳤다.

꿈에서 깬 후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보호 아래 내가 가까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말이다.

품행이 바른 일반인이라도 이것은 아마 통과하기 그리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이토록 힘들게 헤맸던 이유는 ‘수련’의 진정한 의미가 초월적인神通(神通)을 얻는 데 있으며 연공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신묘한 감각을 체험하는 데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힘과 현묘함은 사실 수련자의 내면과 의지 속에 깊이 숨겨져 있으며 진정한 수련의 핵심 본질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 한 번의 뼈에 사무치는 체득을 겪은 후 나는 더욱 안으로 찾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나 자신의 도덕적 품행을 가다듬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게 됐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수련이란 사실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수련 후의 건강 상태

내가 처음 ‘전법륜’이라는 이 보배로운 책을 품에 안고 읽었을 때 나는 동양의 수련 법문과 기공 및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치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개념도 없었다. 그 당시의 나는 몸에 어떤 심각한 질병도 앓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음을 점차 눈치챘고 이런 변화들은 나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어릴 적부터 손톱 아래쪽에 나 있던 그 작은 흰 점들이 어느 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고 나는 자료를 찾아보며 그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고증을 거쳐 나는 그 작은 흰 점들이 사실 인체에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징후임을 알게 됐다. 분명 나는 어릴 적부터 줄곧 이런 비타민 결핍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욱 기쁘게 놀라게 한 것은 생리가 시작되기 전마다 수반되던 그 통증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나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여러 해 동안 통증의 고통에 익숙해져 있던 내 몸이 매월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 주기 때 더 이상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다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지 내 신체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홀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하지만 최근의 어느 여행길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동굴이 사방에 깔린 계곡에서 혼자 며칠 밤을 지내야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내면세계 역시 탈바꿈했음을 깨달았다.

이는 나로 하여금 몇 년 전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 짧은 시기에 나는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했었다.

수련을 시작한 이래 나는 단 한 번도 장기간의 정신적 침체기에 빠진 적이 없었다. 내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내면 깊은 곳에 출구가 하나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매번의 시련은 한 줄기 빛으로 변해 내 내면 더 깊은 곳의 어두운 면을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이끌어 줬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내 몸과 마음은 갈수록 조화롭게 통일됐다. 나는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치 한 줄기 시원한 미풍이 몸속에 흐르는 것 같았다. 내 후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각별히 밝아 보였으며 미각 체험 역시 더욱 생생해졌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 눈동자 속의 안광, 실제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은 외모, 그리고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른 에너지에 감탄해 마지않는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준다. 파룬따파는 초범적이다.

고난이라는 보물

일정한 기간 수련을 거친 후 나는 고통과 시련의 본질에 대해 깊은 체득을 하게 됐다. 때로는 단지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해 몸의 어느 한 부위가 ‘업력(業力)’의 침습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 내면에 잠재돼 있던 어떤 집착을 자각하고 식별해 낼 수 있었다.

내가 수구(修口)에 소홀할 때는 치통을 참기 어려웠고, 내가 정욕과 애정에 집착이 생길 때는 복부 및 아랫배 쪽에 극심한 통증이 전해져 왔다. ‘게으름’이라는 마음의 마(魔)가 주는 시험에 직면할 때는 몸이 굳어졌고 심지어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만약 이런 시련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우주의 ‘진선인(眞·善·忍)’ 특성에서 벗어난 그 생각과 행위의 본질을 이토록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고난들이야말로 내 성장을 이끌어 주는 등대이자 내가 내면의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아니겠는가?

이제 나에게 ‘기적’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기적은 더 이상 단지 어떤 갑작스럽거나 사람을 흥분시키는 사건이 아니다. 반대로 진정한 기적이란 일종의 강인한 인간성의 의지에 있다. 그것은 삶 속의 어떤 순간의 평범함과 지루함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감각적 향락으로 그것을 포장하려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영혼을 정화하고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수련의 대도(大道) 위를 걷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은 사부님과 이 빛나는 정신적 길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이상의 여러 깨달음은 모두 내 현재의 수련 경지와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에 특별히 적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AI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글/ 캐나다 수련자

[명혜망]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일부 도구는 우리의 습관, 생활 관련 정보, 행동 및 사고방식을 추적해 우리에게 제

안이나 도움을 준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됐다.

내 주위의 수련생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 번역하거나 항목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련생들 간의 대화(그중 다른 수련자의 이름이 언급됨)를 녹음한 다음, 분석, 번역 또는 기타 결과를 얻기 위해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다. 우리는 이런 도구들이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이 도구들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이 과연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까? 제3자 회사나 정부에 의해 이용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모두 정부가 바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감시와 기술 통제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측면에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수련생들은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른 수련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모두에게 반드시 경각심을 유지해 수련생이 언급된 대화 내용이나 기타 자료를 절대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말 것을 일깨워주고 싶다.

나는 다시 한번 수련생 여러분께 신중함을 유지해 수련생을 언급하거나 항목을 토론하는 대화 내용 및 기타 자료를 절대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말 것을 일깨워주고 싶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 위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 일을 진지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해 주변의 수련생들을 잘 보호하기를 바란다.

현대 관념에 대한 약간의 인식

글/ 라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현대 관념은 수련인에게 매우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 알아차리기도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현대 관념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원고를 쓰는 동안 현대 관념을 분석한 다른 수련생들의 글을 읽어보았다. 수련 과정에서 나 역시 몇 가지 유형의 현대 관념을 인식하게 됐다. 더 많은 수련생이 그것들을 똑똑히 인식하고 가능한 한 식별해 내려놓으며 수련해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직관적인 현대 관념은 바로 현대의 오락, 무신론, 진화론과 관련된 관념이다.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 많은 관념은 현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며, 심지어 어릴 때부터 배워 형성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초등학교 때 수학 수업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딴생각을 하려 했고, 그 결과 나중에는 그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놀든 선생님은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생각까지 빼앗을 수는 없으니 딴생각을 해서라도 좀 재미있게 지내자는 관념이 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재미 추구’라는 현대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전자 게임을 하는 것 역시 ‘재미 추구’라는 현대 관념이 주도하는 것이다.

전통 관념에서는 ‘완물상지(玩物喪志, 사물을 갖고 노는 데 지나치게 빠져 뜻을 잃음)’라는 말로 사람에게 바른길을 걷도록 일깨워 준다. 반면 현대 관념은 ‘오락’과 ‘게임’으로 사람을 자극하고 부추겨 중독되게 하며, 그래야만 생활이 ‘다채롭고 풍성해진다’고 여기

게 해 제때 즐기라고 한다(현대 관념에서는 이것을 ‘현재를 살아라’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라는 식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많은 관념도 사실은 완전히 해로운 현대 관념일 수 있다.

외부 환경은 사람에게 잘못된 관념이 생기기 쉽게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시험 압박 속에서 순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 내 현대 교육의 전반적인 환경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는 관념이 없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뒤 이런 관념이 생겼고 심지어 2년 동안은 매우 강했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제거하기도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도록 몰아붙여 생긴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현대 관념과 관련된 또 다른 예를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데, 문제와 마주치면 우선 책임을 떠넘기고, 탓할 것이든 탓하지 않을 것이든 그는 모두 밖으로 미루어 버린다.” 예전에는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살펴보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둘러 해명하고 벗어나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임을 발견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 관념은 모든 현대인에게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관념은 모두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거짓된 것이다. 또한 ‘진선인(眞·善·忍)’이라는 우주 특성과 어긋나지만, 사람 자신이 그

것을 믿고 싶어 해 잘못된 관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은 문제를 생각할 때 늘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려 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실제로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 많은 관념은 사람이 굽은 길을 걷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수련인이 이런 관념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속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다. “속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속인의 생각이다. 더욱 고급적인 생명이 볼 때, 인류사회의 발전은 다만 특정한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함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그가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당신에게 안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수련인이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더 높은 층차에 서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즉 법의 표준에 따라 해야 한다.

나에게도 수련의 길에서 관념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었다. 예전에는 늘 자신이 외로움과 무료함에 제약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런 요소들을 느낄 때면 마음이 불편했다. 외로움도 하나의 고비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서 체육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배드민턴을 골랐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잘 아는 10여 명의 친구 중 배드민턴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배드민턴을 선택한 다른 여학생들은 모두 함께 칠 사람이 있었다. 나는 남학생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 혼자 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마음속으로 조금 쓸쓸하고 적막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외로운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외로움은 사람을 많은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 후천적인 오염을 많이 줄여준다. 당시 나는 또 만약 외로움과 무료함도 생명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매우 정직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취미가 있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련 도구를 사는 데 많은 돈을 쓴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흥미를 잃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다치기도 한다. 만약 ‘흥미’도 생명이라면 ‘외로움’이라는 생명만큼 정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외로움과 무료함이 더는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내가 이 생명과 화해한 것 같았다.

관념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은 정(情)의 고비를 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나를 좋아하는 젊은 대학 교사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수업에 나비 리본이 달린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 마침 그날이 밸런타인데이였다. 그는 나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내가 자신의 마음에 호응한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래서 수련인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지 않는 것이 좋다. 이후 나는 화장도 하지 않고 어떤 머리띠도 하지 않았으며 옷차림도 매우 평범하게 했다.) 그 수업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했다. 원래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번은 그가 내 짝에게 컴퓨터 조작을 지도하면서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그에게 끌림이 생겼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며 진정한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그런 연애 감정의 고비에 빠지는 것은 모두 ‘상대가 좋다’는 관념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신에게 그런 관념이 없다면 이 고비도 그렇게 넘기 어렵지 않다. 오랫동안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자 이 고비는 끝났다. 왜냐하면 교란하러 온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가로막기도 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는 내가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상대에게는 또 다른 사고방식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사고방식과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 우리가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음도 더욱 넓어지며 포용력도 더욱 향상돼 고비를 넘기기도 수월해진다.

수련인이 더 많은 관념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면 많은 고비를 넘는 과정도 더욱 수월해지고, 수련에서 제고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전법륜’에는 서로 다른 층차에서 제자가 각종 관념을 인식하고 이런 관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돕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 글은 현 단계에서 내가 처한 층차에서의 개인적인 인식이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삼가 지적해 주길 바란다.

‘쓰레기통’을 ‘보물단지’로 바꾸다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련 중에 얻은 작은 깨달음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관련 기업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 재활용 회사에 쓰레기통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우리가 임시로 대신 신청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 동료가 직접 처리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이 결제 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습니다. 동료는 자신이 처리했으며 다음 달에 그 회사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하지만 겉으로는 꼭 참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이 금액이 우리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동료는 “제가 이미 그쪽에 이메일을 보냈으니 다음 달이면 그쪽으로 변경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어도 이 금액은 여전히 우리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제가 다시 따져 묻자 동료는 “제가 또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계속 변경해 주지 않네요. 그 회사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회사 책임자에게 연락해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부좌를 하는데 마음이 전혀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동료가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나중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평소 동료의 업무 방식까지 원망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아주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는 걸까? 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닦으라는 것일까? 쓰레기통, 쓰레기통……’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담아두고 있으니, 저야말로 쓰레기통이 아닙니까? 왜 동료의 장점은 보지 못한 걸까요? 제 생각은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좋지 않은 것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반짝이는 것을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처음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수련의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안으로 찾지도 않았으면서,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 스스로 꽤나 너그럽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부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법에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며 모두 수련과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바로잡겠습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니 즉시 공간장이 청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수속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우주 특성과 어긋났기에 일이 몇 달씩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깨달음을 얻어, 앞으로 다시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타인이 저의 수련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 제 안의 이러한 집착과

법에 있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 진정으로 수련에서 제고하려 합니다.

법공부와 사부님의 일깨움을 통해, 저는 수련의 길에서 점차 제고하고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보물단지로 변했고,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련생의 장점들을 보았고, 이는 모두 제가 비학비수(比學比修)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자를 위해 걸음마다 세심하게 안내해주신 사부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수련의 길에서 제게 도움을 준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정진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합시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남편의 모습이 나를 착실히 수련하게 하다

글/ 중국 장쑤성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게으름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대법 수련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008년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대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후,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비교적 엄격하게 요구하신다고 느껴 수련에 감히 해이해질 수 없었습니다. 법공부, 연공,

심성 수련, 발정념, 진상 알리며 사람 구하는 일 모두 꽤 다그쳐 했습니다. 특히 ‘명혜주간’에 실린 수련생들의 수련 체득을 본 후 사부님의 법과 대조해 보면서, 점차 사부님의 대법 법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선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 전, 저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일 년 내내 약과 의사를 달고 살아 편한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몸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허약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수련 후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지는 상태가 나타났고, 그 덕분에 남편도 제가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충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성격으로, 힘든 일도 잘 견디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단점이라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일 처리도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두 사람의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수련하지 않았을 때 저는 자주 그에게 화를 냈고, 그는 주로 침묵을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수련을 한 이후 상황이 정반대로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수련을 시작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연공을 마친 후 남편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평소처럼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원망하고 꾸짖는 말투로 그에게 한바탕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고는 바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채 끝내기도 전에 위장이 불편해져서 방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복통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배를 누르며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고 몸으로 고통을 견뎌내며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방금 남편을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드러낸 원망심과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수련 중에서 소업(消業)해야 하는데, 소업은 곧 고통이다.”, “고통을 겪으면 소업(消業)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참으로 현명하시어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즉시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금 지은 업까지 한 번에 없애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사람 마음은 반드시 없애야지, 사부님을 계속 이렇게 신경 쓰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제자가 방금 드러낸 사람 마음을 반드시 없애고 기필코 고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신을 통제하며 이런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약해지도록 억눌렀습니다.

2018년 10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본체만체하거나 어떤 일에서 물고 늘어지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남편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타일렸습니다. ‘나는 수련인이니 반드시 참아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련에 우연한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또 어딘가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자신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도 찾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던 찰나, 갑자기 머릿속에 ‘위에서 내려다보다’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제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깔보는 사람 마음을 갖고 있음을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 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저 자신을 통제하고, 마음가짐을 바로잡으며, 평온한 마음과

말투로 웃으며 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저는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억눌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청하며, 땀속 깊이 박혀 있던 그를 ‘내려다보는’ 집착심을 최대한 닦아 없었습니다.

저는 수련인으로서 층차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요구가 있고, 매 층차마다 없애야 할 다른 사람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하면서 저는 남편과 제가 이번 생에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 나의 수련을 위해서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성격이 다르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에게 있어 이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대략 2021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텔레비전만(소리도 꽤 크게 틀어놓고) 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해서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련 전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작에 한바탕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화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수련인이기에 화를 낼 수 없고 성을 내서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수련인이여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찾으라 갖가지 사람 마음 많이 제거하고 큰 고비 작은 고비 빠뜨릴 생각 말라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 다룰 게 뭐 있느냐.”(홍음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맞습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제 허물을 찾아 얼른 안으로 찾아내 없애야 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기자 뇌리에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집기견(固執己見, 자기의 의견만 굳게 고집함)’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다시

한번 자비롭게 일깨워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이틀 동안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틀 전 집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생각대로 처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일상 생활에서 보여주는 여러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은, 사부님께서 이를 이용해 제게 수련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층차의 다양한 사람 마음을 닦아 없애도록 하신 것이지, 제게 화내고 짜증 내며 미워하고 원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용량을 끊임없이 넓히고 사상 경지를 높여, 여러 층차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요구에 점차 도달하고 동화돼야만 비로소 공이 서서히 위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번 주어지는 기회를 잘 잡아, 시시각각 냉정함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일사일념(一思一念)과 일언일행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사부님께서 매번 고심해 안배 해주신 것을 저버리지 않고, 크고 작은 고비들을 진지하게 잘 넘겨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는 진정한 수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집착심이 점차 줄어들고 심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남편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졌으며 부지런해져서, 원래 제가 해야 할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며 제가 수련과 관련된 일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상은 제가 수련의 길을 걸으며 두 가지 일을 통해 얻은 얇은 체득입니다. 글로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나누고자 하니,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티베트 국경 산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글/ 통카이(桐凱)

[명혜망] 2026년 8월 26일 히말라야산맥 중국과 네팔 국경의 지룽거우(吉隆溝)에서 초대형 빙하 붕괴 산사태가 거의 아무런 징조도 없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대량의 얼음과 암석 진흙이 초당 약 50m의 속도로 쏟아져 내렸다. 러쥘교(熱索橋)가 휩쓸려 파괴됐고 지룽 통상구(吉隆口岸) 합동검사빌딩이 순식간에 삼켜졌다. 수십대의 관광버스와 화물트럭도 굽이치는 진흙 물결에 휩쓸려 갔다.

산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하천을 막아 언색호(堰塞湖)^[주]를 형성했다. 홍수는 이후 강 골짜기를 따라 줄곧 남하해 네팔 영토로 진입해 하류의 여러 마을을 삼켰다.

‘티베트 에베레스트’ 광고는 우연일까?

이 뉴스를 보니 매우 마음이 아팠고 또한 우리에게 2025년 선원 공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세인을 구하다(救世人)’로 배경은 중국 상하이였으며 거대한 홍수가 도시를 휩쓸어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파도가 상하이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해 이 크나큰 재난을 막아내며 더 끔찍한 사상자를 피하게 하셨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는 의미심장한 세부 묘사가 하나 있었다. 무대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상하이의 도시 정경이었지만 화면에는 매우 눈에 띄는 광고판이 하나 나타났는데 위에는 ‘티베트 에베레스트(西藏珠峰)’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역주: 西藏珠峰은 중국 상하이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광업 기업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예언이었을까? 오늘날 지룽거우에서 발생한 이 재난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에베레스트’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제로로는 하늘의 뜻을 막기 어렵다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현지 날씨는 맑고 구름이 적었으며 이상 강우도 없었다. 빙하 붕괴가 발생해서 지룽 통상구를 삼키기까지 불과 6~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갑작스러운 모든 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큰 재난 앞에서 사람은 매우 작고 매우 나약했다.

지룽 통상구 건물은 애초에 하천 홍수가 지나야 필수 경로에 터를 잡았기에 일단 상류에서 물이 밀려오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돼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건축물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의 상징이었는데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기 때문이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공이 대대적으로 투자해 대외적으로 ‘인프라 건설 실력’을 과시하는 모범 공정 중 하나이기도 했다. 중공에게 있어 이것은 또한 그들이 오랫동안 선전해 온 서사이기도 하다. 즉 당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 제도만 우월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건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산사태에 송두리째 뿔뿔히 쪼개져 27곳의 건축물과 함께 평지가 돼 거의 지도상에서 지워졌다.

왜 국제 구조를 거부하는가?

재난이 발생한 후 일부 언론은 중공의 선전에 따라 이번 참사를 기후 온난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귀결시키며 불가항력적인 고지대 빙하 붕괴가 초래한 연쇄 반응이라고 했다. 불가항력적이라면 왜 이곳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는가? 동시에 중공은 모든 국제

구조를 거부하고 외국 구조대와 독립 언론이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외부에서 시종일관 사고의 전모를 똑똑히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재앙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일대일로’는 중공이 세계에서 ‘전 우’를 끌어들이고 ‘동맹’을 맺는 수단이며 평범한 중국인의 우호적인 마음은 그저 이용당해 중공을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다. 동시에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이란 대전제하에 기꺼이 중공과 동맹을 맺으려는 파트너의 결말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재난은 매우 민감한 티베트 국경에서 발생했으며 군사 시설, 국경 간 수리 공사 및 ‘일대일로’ 전략 거점과 관련돼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공은 본래 지각판 충돌의 핵심 단층대이자 지질 구조가 극도로 취약한 이 지역에서 국경 간 수력발전소 고압 송전선로 및 통상구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오랫동안 산을 폭파하고 깊이 파내려가면서 고지대 빙하가 원래 의존해 지탱하던 산체 구조의 균형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뜨렸다.

지룽 통상구는 동시에 중공 티베트 군구가 남아시아 방향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군민 양용 요충지이기도 해 전략적 지위가 극히 민감하다.

이번 재난은 중공을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일단 오랫동안 강도 높은 공사 시공이 이번 빙하 붕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면 막대한 자금 투입(납세자의 돈)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반드시 하늘을 이긴다(人定勝天)’거나 ‘인프라 건설광(基建狂魔)’이라는 중공의 서사가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천지를 멸시킨 필연적인 대가

중국인은 예로부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중요하게 여겼다. 노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다. 사람과 천지의 관계는 정복이 아니라 경외다. 하늘에는 천도가 있고 땅에는 지덕이 있으며 사람은 천지 사이에 살면서 오직 인덕을 준수해야만 천지간에 안신입명(安身立命)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천지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중공에 이르러 이런 경외심은 철저히 전복됐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고 천지도 공경하지 않으며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사람과 싸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를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미화했다. 그들이 제멋대로 산을 폭파하고 파헤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늘과 땅과 싸우는 사상의 지도에 기반한 것이다. 여러 지역 저수지의 방류로 농경지 촌락 도시 행인이 수몰되는 참극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져온 것은 단지 거둬지는 재난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인심과 도덕 체계를 거둬 붕괴하게 만들었다. 간단히 말해 중공을 따라 천지를 멸시킨 필연적인 대가는 사람의 목숨이다.

중공은 다년간 ‘인간이 반드시 하늘을 이긴다’고 선전하며 당의 의지가 자연의 법칙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이런 무신론의 오만한 사상이야말로 가장 사람을 잘못 이끌고 가장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지룽 통상구 건물의 철저한 파멸은 이런 오만함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강대해 보여도 ‘천멸중공’, ‘중국 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라는 하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팔의 교훈

이번 재난에서 네팔 측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되는 네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 중공 측이 발표한 사망자 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데, 중공의 발표는 영원히 모두 거짓 숫자일 뿐이다.

수년간 네팔 정부는 계속해서 중공에 적극 협조하며 협정을 맺고, 토지를 승인하고, 중국 자금을 끌어들이며 도로·수력발전소·국경 간 전력망을 건설해왔다. 이 때문에 네팔은 중공에 대한 채무 의존에 빠졌다는 비판을 거듭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중공에 대한 이 ‘채무 의존’은 어떠한 보호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오히려 수력발전소, 송전선로, 통상구(국경 검문소) 건설이 하나둘씩 본래 취약했던 이 강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면서, 더 많은 마을과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재난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중공 강패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결코 네팔 한 곳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확실히 여러분은 중공의 ‘일대일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그 국가들이 어떤 재난 혹은 천벌을 겪었는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속의 행운아

당시 험지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산홍수와 산사태가 닥쳤을 때 건물 안으로 도망가든 지붕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차 안에 숨든 모두 재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천재지변과 사건사고 앞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살아남지 못할지는 결국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다.

홍수가 들이닥치기 10분 전 네팔 누와코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단호하게 전교생과 교사 900명을 대피시켰다. BBC 보도에 따르면 그날 오전 라젠드라 다와디 교장은 불과 몇 분 만에 연달아 네 통의 전화를 받았고 매 통화마다 그에게 큰 홍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줬다. 그중 한 학부모는 딸을 미리 데려가기 위해 일부러 학교까지 달려왔는데, 이

장면은 그에게 사태가 이미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줬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전교생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려 아이들을 높은 곳으로 피하게 했고 학생들을 데리러 출발하려던 통학버스를 멈춰 세워 즉시 차를 돌려 위험 구역에서 벗어나게 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한 직후 학교 건물과 기숙사 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굽이쳐 밀려오는 홍수와 잔해에 철저히 삼켜졌다. 900명의 교사와 학생들의 목숨은 이렇게 재난이 닥치기 전 마지막 10분 동안 구출된 것이다.

관료주의적인 책임 회피도 없었고 ‘선생님이 먼저 도망치는’ 일도 없었으며 오직 교장과 학부모의 생명에 대한 경외와 소중히 여김만 있었다. 하늘은 생명을 아끼는 덕을 가지고 있어 선량한 사람에게는 살길을 남겨주는데 동서고금의 역사상 이런 사례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작고 작은 사람은 영원히 천지와 항쟁할 수 없으며 이 방면의 사례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근본적으로 위험을 피해야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재해에 직면해 사람은 당연히 제때 올바른 방법을 취해 위험을 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가능한 한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번 산사태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심층적인 시사점은 사실 매우 많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네팔 외에도 더 많은 ‘일대일로’의 이면 세부 사항이 아마 속속 흘러나올 것이다.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는 우선 대세를 똑똑히 인식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즉 인심을 타락시키고 신과 적이 되는 재앙과도 같은 중공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길이다.

[주] 언색호는 산사태(낙석)나 용암이 하천을 막아 물이 어느 정도 고여 형성된 호수를 가리킨다.



▲ 2026년 9월 6일, 미국 남서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LA에서 개최됐다. LA, 샌디에이고, 애리조나주 및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다양한 민족 수련자들이 참가했다. 20명의 발표자 중에는 수련한 지 30년이 넘는 수련자도 있었고, 최근에 수련을 시작한 서양인 수련자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타인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왔는지 이야기했다. 법회장에서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 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76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607만 836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